

우암(尤庵)의 화양구곡 ‘침성대’에서의 ‘천문관측’설 및 선기옥형(璿璣玉衡)의 용도에 대한 검증*

李相周**

-
- I. 머리말
 - II. 우암(尤庵)의 화양구곡 ‘침성대’에서의 ‘천문관측’설에 대한 검증
 - III. 우암이 소유했던 선기옥형의 용도와 그 제작자
 - IV. 맺음말
-

I. 머리말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용삼 교수는 화양구곡 침성대에서 우암이 실제 천문을 관측했으며, 우암이 소유한 선기옥형이 천문관측용이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¹⁾ 이 내용을 청주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중부매일’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다.²⁾ 또한 국립 청주박물관에서도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화상으로 소개하고 있다.³⁾ 일반인도 그렇지만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 본 논문은 우암 선생 탄신 4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이상주, 「‘화양구곡(華陽九曲)’과 그 문화유적에 대한 종합적 고찰」, 『원칙과 개혁에의 고뇌, 우암 송시열의 사상과 문화』, 우암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007.

** 문학박사. 극동대 외래교수. 청주대 강사.

1) 李勇三, 「尤庵의 渾天儀와 華陽九曲 瞻星臺에 대한 고찰」,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창립기념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07.

2) 중부매일신문 2007년 4월 2일자 기사 : “우암, 침성대에서 실제 천문 관측했다.” 조혁연 문화체육부장이 기사를 썼다.

3) ‘국립청주 박물관 개관 20주년 우암 탄신 400주년 기념 특별전 - 우암 송시열’, 2007.10.23~2008.1.30. 청명관 기획전시실.

다음 내용은 인터넷에 올라있는 기사 전체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사람과 풍경] 산골학교에 박물관 났다 “우와! 신기해” 청주박물관 ‘화상 특별전’ 송시열 유물 실시간 전송 ‘생생’...학생들 질문 봇물

충북 단양 별방초중학교 학생 15명이 8일 오후 ‘화상으로 만나는 우암 송시열 특별전’을 지켜보고 있다. 청주박물관 제공.

“우와! 정말 박물관 유물이 그대로 보이네. 신기하다.”

8일 오후 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 초·중학교 도서관에서 ‘우암 송시열 특별전’이 열렸다.

초등학교생 36명, 중학생 23명, 유치원생 5명이 고작인 두메산골 학교의 특별전은 화상으로 이뤄졌다.

화상 특별전은 우암 탄신 400돌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우암 송시열전을 열고 있는 국립청주박물관이 벽지 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전시 관람 기회를 주려고 마련했다.

KT 충북본부 등의 기술 지원을 받아 박물관과 학교에 화상 관람 시설을 해 실시간으로 두 곳을 이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식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것을 진실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킬까 염려된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는 데는 최소한 다음 원칙을 적용해야한다. 즉 어떠한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면밀히 추적해야한다. 이는 당시의 실제 사실과 어긋남 없이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우암을 제대로 읽으려면 먼저 우암이 읽은 책을 제대로 읽어야한다. 그 다음 우암의 글과 그 제자들의 글을 제대로 읽어야한다. 우암을 확대미화하려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읽어야한다. 이용삼 교수의 주장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II. 우암(尤庵)의 화양구곡 ‘첨성대’에서의 ‘천문관측’설에 대한 검증

이용삼의 논문 목차 III. 화양구곡 첨성대의 고찰 1. 화양구곡 첨성대의 유래라는 제목 하에 서술한 내용을 우선 점검해보기로 하자.

ㄱ. 32면: “이곳 화양리에 위치한 화양구곡 첨성대는 우암이 정계 은퇴 후 이곳에 은거하면서 천문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인들이 자주 내려와 이곳이 더욱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괴산 군지, 1990).”

ㄴ. 33면: “이 암서재는 괴향문화(1991)에 의하면, 우암이 은거 당시 理學을 집대성하고 天文儀器인 혼천의를 직접 제작하고 첨성대에서 천체를 관측하면서 후진양성에 힘썼으니 첨성대란 명명을 적극적으로 한 것 같다”는 내용이 첨성대라는 명명은 우암 송시열이 처음 명명한 것이고 천문 활

성재현 학예사가 청주박물관에 전시된 우암 영정 3점, 우암이 쓰던 지팡이·책상·베개 등 소품 10여점, 『송자대전』 등 책과 장원급제 교지 등 80여점의 유물을 일일이 설명했다.

화면으로 청주에서 단양까지 2시간30분의 시간과 공간을 극복한 5·6학년 학생 15명은 화상 설명이 끝나자 거침없는 질문을 쏟아 냈다.

5학년 김상겸(11)군이 “왜 우암 선생의 책상은 오목하게 생겼어요?”라고 묻자 성학예사는 “우암 선생은 책장을 잘 넘기고, 책을 넓게 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오목한 책상을 썼다”고 설명했다.

6학년 안지혜(12)양이 “정말 우암 선생이 혼천의를 만들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성학예사는 “괴산 화양동의 5곡인 첨성대에서 우암 선생이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려고 혼천의를 만들었다”고 했다.

학생들은 우암이 인조 11년(1633년) 생원 시험에서 작성했던 답안지(시권)와 장원 합격증서(백패), 북벌을 추진하던 효종이 우암에게 건넨 초구, 정조가 직접 책 제목을 정한 『송자대전』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 냈다.

6학년 원지희(12)양은 “책으로만 보던 우암 선생 관련 유물들을 학예사님의 설명과 함께 화면으로 보니까 생생하고 이해가 빨랐다”고 말했다.

이 학교 추병옥(38)교사는 “큰 맘 먹고 체험 학습이라도 떠나야 만날 수 있는 박물관과 유물을 화상으로 만나 학생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역사 뿐 아니라 우리의 발달한 정보 통신 기술을 설명 없이 이해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기사등록 : 2007-11-08 오후 09:09:36 © 한겨레 (<http://www.hani.co.kr>).

등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ㄷ. 32면: “이 암서재에는 목조와가로 2칸은 방이고 1칸은 루로서 여기에 현판 5점이 걸려있는데 이 중 1점은 우암의 친필로 양각되어있다.”

위의 ㄱ과 ㄴ에서 보듯이, 이용삼은 괴산군지(1990)와 괴향문화(1991)의 ‘침성대’라는 명칭이 우암이 천문을 관측한데서 유래했다고 기술한 내용을 실제 사실로 믿고, 침성대에서 우암이 천체를 관측했다는 사실을 논증하려 노력했다. 그가 참고한 자료는 모두 2차 자료이다. 2차 자료라 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2차 자료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인용한 1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그 1차 자료가 실존한다면 그를 토대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그는 1차 자료의 확인고증과정을 생략하고, 괴산군지와 괴향문화의 내용을 맹신하고, 자의적으로 접근했다. 또한 조선시대 당시의 사상적 배경과 사유체계를 도외시하고 비논리적 상상력으로 합리화하려 했다.

1. 침성대라 명명한 사상적 배경

이용삼은 화양구곡 중 ‘침성대’라는 명칭이, 우암이 그곳에서 천문을 관측했기 때문에 명명된 것으로 인식하고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필자는 먼저 침성대라 명명한 사상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 침성대의 기능이 자명하게 될 것이다. ‘침성대’라 명명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살펴보기로 하자.

1) 송시열(宋時烈)이 1667년에 지은 「청주공북루기(淸州拱北樓記)」를 읽어보자.

“옛날 주부자(朱夫子)께서 경주(瓊州) 지락정(知樂亭)⁴⁾에 기문을 써서 쓰기를 ‘나라 사람과 사녀(士女)들이 아름다운 날과 좋은 날씨에 시를 읊조리고 노래 부르며 북치고 춤추며, 임금의 교화를 입은 것을 즐거워하는데, 북쪽으로 구름 떠가는 하늘 저 멀리 대궐을 바라보니, 세시(歲時)에 우러러 바라보고 서서 축하하고 맞이하는 자리다.’라고 했다. … 그러나 통솔하는 데는 반드시 조종이 있으며, 회합하는데도 반드시 근본이 있으니, 이는 황건(皇建)이 그 지극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필수적으로 삼가함과 명석함(欽明)이 넓게 운용되고, 공손함이 이미 남쪽을 향한 연후에 그 아래에서 자연히 우러러볼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 말하기를 “정사(政事)를 덕(德)으로 하면, 비유컨대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으면 못 별들이 그를 안고 따라 도는 것과 같다.”⁵⁾”고 했다. 만약 혹 어지럽고, 자질구레하고 번잡하여 통일이 없고 전도되어 현혹되면, 즉 이미 자리 잡은 가운데 밖으로 호응하는 뜻을 이미 잃을 것이다. 하물며 백성이 등지고 떠나가지 않는 것을 바람에라! 비록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고, 모든 시내가 반드시 동쪽으로 흐르듯이 사물의 속성은 또한 그런 것이 있으니, 즉 신민이 임금을 향하는 정성이 어찌 이곳에서 모름지기 간격이 있겠는가? … 루의 증건은 지금의 임금 정미년(1667년)이며 지금의 제후는 성

4) 주자(朱子)의 「경주지락정기(瓊州知樂亭記)」가 있음.

5) 「위정(爲政) 『논어(論語)』」.

중대왕의 훌륭한 후손(閔孫) 이섭(李暹)이며 자(字)는 퇴숙(退叔)이다. 이해 7월 주민 송시열이 기록하다.⁶⁾

“정사(政事)를 덕(德)으로 하면, 비유컨대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으면 못 별들이 그를 안고 따라 도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은 『논어』 「위정」에 나오는 말이다.

2) 『화양지(華陽誌)』 권2 「황묘사실(皇廟事實)」의 내용을 살펴보자. “문(門)의 편액을 성공(星拱)이라 했는데 『논어(論語)』 북진장(北辰章)의 말을 취하여 문의 이름으로 명명한 것이다.⁷⁾ 북진장(北辰章)은 바로 위에서 살펴본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다.

3) 『화양지』 권2 「황묘사실」을 보자. “침성대는 시내 남쪽에 있다. 즉 낙양산 아래 기슭에 층암으로 이루어진 바위가 서로 쌓여 대를 이루었는데 높이가 100길이나 된다. 아래에 석굴(石龕)이 있어 마애(磨崖)하고 황필(皇筆)을 새겨놓은 까닭으로 이름 지었다.”⁸⁾ 여기서 황필은 명나라 의종(毅宗)의 어필인 비례부동(非禮不動)과 신종(神宗)의 어필(御筆)인 옥조빙호(玉藻冰壺)이다. 비례부동(非禮不動)은 지금 글씨가 남아있다. 옥조빙호(玉藻冰壺)라는 글씨는 직육면체의 돌에 새겨서 암벽에 흠을 파내고 끼워 넣었다. 『華陽誌』 「厓刻事實·玉藻冰壺」에도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그 흠을 파낸 흔적만 남아 있고, 그 실물은 행방을 알 수 없다. 옥조빙호(玉藻冰壺)는 임금의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야 된다는 의미로 썼다.

4) 다음 박노중의 시 「차덕산구곡원운(次德山九曲原韻)」 제8곡 침성대(瞻星臺)를 보자. “제1구: 팔곡성대운리개(八曲星臺雲裏開), 제2구: 청소북망두표회(淸宵北望斗杓回). 팔곡이라 침성대(瞻星臺) 구름사이에 펼쳐지고, 맑은 밤하늘에 북쪽을 바라보니 북두칠성 돌아가네.⁹⁾” 이 역시 『논어』 「위정」편의 내용을 시화한 것이다.

5). 충북 청주에 있던 ‘공북루(拱北樓)’는 물론이요, 충남 공주(公州)의 공진루(拱北樓), 전북 전주의 공진

6) 송시열(宋時烈), 「청주공북루기(淸州拱北樓記)」, 『송자대전(宋子大全)』 III, 한국문집총간 113, 민족문화추진회, 1993, 37면. “昔朱夫子, 記瓊州知樂之亭曰, “邦人士女, 佳辰勝日, 詠歌鼓舞, 樂被聖化, 而北望雙闕於雲天縹緲之間, 以爲歲時瞻佇延祝之地. 夫瓊州去中州萬里之遠, 而又獠蜒之所雜處. 然而甫以守師之化, 而猶尙如此, 況我淸州之地, 實我國家土中, 而在王京秭服之內, 先正之所設教, 群賢之餘有馥. 故其謠俗之文明, 甲於東南, 蓋已久, 而又有今侯之導率, 則其士民, 尊君歸極之心, 宜有異於他邦矣. … 然統之必有宗, 會之必有元, 此皇建其有極者然也. 必須欽明廣運, 恭已南面, 然後 其下自然瞻仰. 故聖人有言曰,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拱之. 若或紛紜叢脞, 顛倒眩惑, 則已失其居中應外之義矣. 況望民人之不背而去乎! 雖然葵花向日, 百川必東, 物性亦有然者, 則臣民嚮上之誠, 烏可斯須, 而有間也哉?. … 樓之重建在, 今上丁未, 今侯是性宗大王之閔孫 李暹 字退叔也. 是年 七月, 州民恩津宋時烈記.”

7) 「황묘사실(皇廟事實)」, 『화양지(華陽誌)』 권2, “門扁曰 星拱 取論語北辰章語, 命之門.”

8) 「구곡동천(九曲洞天)」, 『화양지(華陽誌)』 권1, “附. 瞻星臺 在溪南, 卽 洛陽山之下麓, 有層岩, 相累成臺, 岌嶮, 幾百丈. 臺下有石龕磨崖而刻皇筆故命.”

9) 박노중(朴魯重), 「차덕산구곡원운(次德山九曲原韻)」, 『창암집(滄菴集)』 권1·2, 대전 서진인쇄출판사, 1997.

이상주, 『충북의 구곡과 구곡시』, 忠北學研究所, 2007, 292쪽.

루(拱辰樓)¹⁰⁾도 『論語』 「爲政」편의 내용을 누각의 이름에 표상화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양구곡 ‘첨성대’는 『논어』 「위정」에 나오는 임금의 덕화의 중요성을 자연물에 표상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명나라 황제인 신종(神宗)이 조일전쟁 때 원군을 보내준 은혜와 우리나라 선조와 효종의 성운을 잊지말아야한다는 의식을 가탁한 것이다. 그래서 ‘첨성대’라 명명한 것이다.

이렇듯 화양구곡의 ‘첨성대’는 유학 사상을 배경으로 명명된 것이다. 화양구곡의 ‘첨성대’에서 우암이 천체를 관측했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당시의 상황과 사상적 배경을 모르고 단지 ‘첨성대 즉, 별을 바라보는 대’라는 이름에 얽매어 해석한 결과인 것이다.

2. 우암의 천문관측에 대한 자료의 유무 검색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필자는 조선시대 당시의 세계관과 사유체계를 근거로 볼 때, 화양구곡 ‘첨성대’에서 우암이 천문을 관측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러나 혹 우암이 그곳에서 천문을 관측했다고 기록해 놓은 문헌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자료를 색출하려고 노력했다.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창에 ‘첨성대’를 검색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1).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창에 표시된 "첨성대(瞻星臺)"에 관한 자료 내역

"첨성대(瞻星臺)"에 대해 총 98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분류 전체 서명 저편필자명 권차명 기사명 간행연대 본문
한국문집총간 49건 0건 0건 0건 13건 0건 36건
국학원전 4건 0건 0건 0건 0건 0건 4건

분류 전체 서명 저편 필자명 권차명 기사명 간행연대 본문
고전국역총서 18건 0건 0건 0건 2건 0건 16건

분류 전체 서명 저편 필자명 권차명 기사명 간행연대 본문
국역조선왕조실록 4건 0건 0건 0건 0건 0건 4건

분류 전체 서명 저편 필자명 권차명 기사명 간행연대 본문
한국문집총간총목차 23건 0건 0건 0건 0건 0건 23건 “

10) 이하곤, 『두타초(頭陀草)』, 『남유록』, 한국문집총간, 191, 1999. 壬辰 十月 二十八日, 至全州 暫憩拱辰樓. 임진년은 1722년임.

이상주, 『18세기초 호남기행 - 남유록과 남행집』, 역문 59쪽. 원문 349쪽, 이화문화출판사, 2003.

위의 검색내용 중에, 다음에 제시한 내용은 우암과 관련이 있거나 화양구곡 침성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외는 경주에 있는 침성대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것이다. '31' 등의 숫자는 검색 목록의 일련번호이다.

(2).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자료 내역 중 화양구곡 침성대에 대해 언급한 기록들

- 31 한국문집총간 월곡집(月谷集) 오원(吳瑗) 1752년 湖左日記 218_487a
...溪右巨石盤屈甚奇。名臥龍巖。其脊中坳。蜿蜒委折。又有如龍蛇迹。又數百步。溪左石 崖高峙。曰瞻星臺。巖勢若簷角。
- 32 한국문집총간 춘주유고(春洲遺稿) 김도수(金道洙) - 南遊記 219_032c
...巴串之水。而是洞有九曲之號。象武夷之山。曰擎天臺。曰雲影潭。曰泣弓巖。曰金沙潭。曰凌雲臺。曰瞻星臺。曰臥龍...
- 33 한국문집총간 녹문집(鹿門集) 임성주(任聖周) 1795년題毅宗皇帝御筆下 228_436a
...題毅宗皇帝御筆下 右毅宗皇帝御筆四大字及宋文正公所題六字。刻在華陽洞之瞻星臺。今就其印本而敬模之。奉掛....
- 34 한국문집총간 청성집(靑城集) 성대중(成大中) 1840년 華陽洞記 248_480b
...正公借之居。仍爲萬東廟及文正書院。一曲曰擎天壁。二曰雲影潭。三曰泣弓巖。四曰金 沙潭。五曰瞻星臺。六曰凌雲...
- 36 한국문집총간 근재집(近齋集) 박윤원(朴胤源) 1817년 題華陽九曲 250_056c
...何沍沍。 臥龍巖 窪坎旱不渴。尙疑龍蜿蜒。僧指石罅裂。云是蟠處穿。 瞻星臺 穹石倚青天。攀登星可...
(先二氏而恢基。羅新羅也。二氏麗與濟也。○以下新羅事。峻星臺與月城。度壯居之宏規。 眞德王時。作瞻星臺。累石...)
- 36 한국문집총간 근재집(近齋集) 박윤원(朴胤源) 1817년 題華陽九曲 250_056c
...何沍沍。 臥龍巖 窪坎旱不渴。尙疑龍蜿蜒。僧指石罅裂。云是蟠處穿。 瞻星臺 穹石倚青天。攀登星可...

위에서 보듯 한국문집총간에 보이는 기사 중 6건이 화양동 침성대에 관한 기사이다. 대개 침성대의 경관에 대한 내용이다. 우암이 거기서 천체를 관측했다는 기록은 없다.

다음은 한국문집총간 목차에 나오는 침성대 중 우암과 관련이 있거나 화양구곡 침성대에 관한 제목이다.

- 守宗齋集, 宋達洙, 華陽九曲次武夷棹歌韻 313_10 瞻星臺 313_11
恕菴集, 申靖夏, 同伯溫登瞻星臺得天字二首 197_191
櫟泉集, 宋明欽, 瞻星臺 221_48
心庵遺稿, 趙斗淳, 瞻星臺 307_28

위의 기록에도 우암이 침성대에서 천체를 관측했다는 내용은 없다.

이상에서 제시했듯이 우암이 화양구곡 침성대에서는 물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천문을 관측했다는 기록은 있는 것 같지 않다. 『송자대전(宋子大全)』¹¹⁾은 물론 그의 수제자들의 문집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기호사림과 그 후손의 기록에도 그런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실제 우암이 한밤중에 제자들과 침성대에 올라가서 천문관측을 했다면, 동참한 제자는 더 없는 영광으로 알고, 충실하고 분명하게 기록했을 것이다. 만일 정기적으로 치밀하게 별자리 이동이나 별빛의 밝기 등을 관찰했다면 별도의 책을 남겼을 것이다. 스승의 교훈 및 행적을 기록하는 것을 중시하는 당시 사대부들의 속성상 관측일지를 단행본으로 묶거나, 자기의 문집에 그 사실을 단 한 줄이라도 기록했을 것이다.

실제 관련 기록을 남겼는데도 소실되거나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실제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느 누구의 기록에라도 남아 전할 것이 아닌가.

3. 우암의 행적에 대한 기록 - 화양동 암각(巖刻) 및 기타 각자(刻字)

문헌 기록에 우암이 화양구곡 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없다면, 혹 화양구곡 바위에라도 새겨놓았을 가능성을 상정해보고 화양구곡의 암각글씨를 확인해보았다. 우암이 실제로 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했다면, 아마도 침성대 주변 바위, 그것도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새겨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새겨놓은 곳은 없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우암에 관한 기록을 얼마나 지성을 다해 새겨놓았는지 살펴보자.

먼저 화양동이다. 화양구곡 제4곡 ‘금사담(金沙潭)’ 입구 암벽에 새겨놓은 우암의 글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蒼梧雲斷，武夷山空。右八字卽 老先生書贈我曾祖文純公者也，宜傳於此山。謹付院有 司任相周魚錫疇摸刻。崇禎三壬午，後學 權震應識。

창오산(蒼梧山)¹²⁾의 구름이 끊어지고, 무이산(武夷山)¹³⁾이 비어 있네. 오른쪽 여덟 글자는 즉 원로인 송시열 선생께서 나의 증조 문순공에게 써주신 것으로 마땅히 이 산에 전해야한다. 삼가 화양서원의 유사 임상주(任相周)와 어석주(魚錫疇)에게 부탁하여 본떠 새기게 했다. 승정 세 번째

11)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VIII, 부록(권14~권18), 「語錄」, 한국문집총간 115. 민족문화추진회, 1993.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VIII, 부록(권19), 「記述雜錄」, 한국문집총간 115. 민족문화추진회, 1993.

12) 창오(蒼梧): 蒼梧山. 일명 九疑山. 湖南省 寧遠縣 東南. 舜임금을 蒼梧의 들에 장례 지냈다. 『禮記』, 「檀弓」 上.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39년에 남으로 순수하다가 蒼梧의 들에 붕어하여 九疑에 장례 지냈는데 零陵이다. 『史記』 「五世紀」.

13) 무이(武夷): 武夷山. 중국 福建省 崇安縣 남쪽에 있는 산. 무이산의 仙靈의 이름이 武夷라서 산 이름을 그렇게 붙였음. 朱子가 은거하며 학문과 교육 그리고 문학 활동을 하던 곳이다.

임오년(1762년) 후학 권진응이 기록하다.

오른쪽 8자는 ‘창오운단(蒼梧雲斷), 무이산공(武夷山空)’이다. 노선생(老先生)은 송시열이다. 문순공(文純公)은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시호이다. 원유사(院有司) 임상주(任相周 1710~1791)는 임천 조씨 금시당(今是堂) 임의백(任義伯 1605~1667)의 후손이다. 권진응(權震應 1711~1775)은 권상하의 손자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우암의 글씨라는 점과 그것을 새긴 사람이름을 명확하게 새겨놓았다. 우암의 수제자 수암의 손자 권진응이 주선하여 새겼다.

화양구곡 제6곡 ‘첨성대’ 하단 암벽에 새겨놓은 ‘송정어필(崇禎御筆)’에 대해 살펴보자.

崇禎皇帝御筆. 非禮不動. 陪臣閱鼎重奉至, 與宋時烈等, 謹拜手稽首摸勒. 時 四十七年
甲寅四月日也.

14)배신 민정중(閔鼎重)이 받들고 왔는데 송시열등과 더불어 삼가 손 모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
려 본떠 새겼다. 이 때가 47년 갑인년(1674년) 4월 며칠이다.

민정중(1628~1692)은 송시열의 제자이다. 위와 같이 글씨를 새기게 된 사연을 분명히 새겨놓았다. 화양구곡 제6곡 첨성대 하단, 즉 ‘비례부동’을 새긴 아래 부분에 새긴 글씨를 살펴보기로 하자.

大明天地. 崇禎日月. 此八字陪臣宋時烈嘗書與人者也. 正宜於此山中, 謹摸以勒.¹⁵⁾

大明的 天地요(큰 명나라의 천지[세상]요) 崇禎의 日月이다(송정황제의 해와 달[시 대]이다. 이 여덟 자는 배신 송시열(宋時烈)이 일찍이 써서 사람에게 준 것이다. 정말 이 山中에 두는 것이 마땅하여 삼가 본떠서 새긴다.

여기서도 글씨를 쓴 사람이 송시열이라고 새겨놓았다. 이렇듯 우암과 관련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암면에 새겨놓았다. 이럴 정도인데 우암이 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한 것이 사실이라면, 첨성대 주변 암면에 새겨놓지 않았겠는가.

‘巖棲齋’ 시관을 보자. “溪邊石崖關, 作齋於其間. 靜坐尋經訓, 分寸欲躋攀. 右尤庵先生巖棲齋詩” 여기에도 우암이 지은 시라는 사실을 명시했다. 글씨는 그 수제자 수암 권상하가 썼다.¹⁶⁾ 이용삼은 그의 논문에서 우암의 글씨라고 기술했다.

다음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백리 ‘이지당(二止堂)’ 입구 암벽에 새긴 내용을 살펴보자.

14) 권상하(權尙夏), 「화양애각 어필발(華陽崖刻 御筆跋)」, 『한수재집(寒水齋集)』, 한국문집총간 150, 415면. “神皇罔極之恩, 東土含生, 萬世不忘. 今其手書四大字, 流傳于我東, 天意豈偶然哉? 故 陪臣宋時烈之門人權尙夏李先稷等, 刻于 毅宗御筆左. 庶幾 并傳於千億矣. 時 崇禎 九十年 丁酉(1717년) 八月 日也.”

15) 권상하(權尙夏), 「서화양애각후(書華陽崖刻後)」, 『한수재집(寒水齋集)』, 한국문집총간 150, 404면.

16) 심정진(沈定鎭), 「암서재기(巖棲齋記)」, 『제헌집(霽軒集)』권2. “尤庵先生始處於草堂以其淺也. 就金沙潭上構小屋以處, 是爲巖棲齋也. 室二架軒一 架黏壁依巖, 不臨于潭. 其齋號刻揭楣東, 遂翁之書. 又有尤翁詩板, 遂翁所書. 其詩曰 溪邊石崖關, 作齋於其間. 靜坐尋經訓, 分寸欲躋攀.”

二止堂. 崇禎 丁卯日. 重峰 趙先生 游賞之所. 尤齋先生 書

二止堂. 崇禎 丁卯日. 중봉(重峰) 조선생(趙先生)이 유상(游賞)하던 곳이다. 우재선생(尤齋先生)이 썼다

위에서 보듯이 이곳은 중봉 조헌선생이 유상하던 곳이다. 그 사실을 쓴 우암의 글씨를 바위에 새기고, 아울러 우암 송시열이 글씨를 썼다고 새겼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앞 계곡 바위에 새겨놓은 우암의 글씨를 살펴보자.

霽月光風更別傳, 聊將絃誦答潺湲. 華陽老夫書¹⁷⁾

제월광풍(霽月光風)은 다시 별도로 전하는데, 애오라지 장차 거문고 연주하여 잔잔한 물소리에 화답하네. 화양노부(華陽老夫)가 쓰다.

화양노부(華陽老夫)는 송시열이다.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이 사실을 수암 권상하가 또 기록했다는 점이다.¹⁸⁾ 이렇듯 우암이 쓴 글자 하나 그 말 한마디도 모두 기록했는데, 하필 침성대에서 천체를 관측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호서읍지(湖西邑誌)』의 기록을 주목해보자.

『沃川邑誌』 樓亭. 觀天石. 在佳山. 重峰仰觀天象于此, 尤菴(庵)으로 쓴다. 인용자 주)題其石曰中峰先生遊(비석엔 ‘遊’로 되어있다. 인용자 주)賞之石. 後孫石烈堅碑.¹⁹⁾

『沃川邑誌』 樓亭. 관천석(觀天石)은 가산(佳山)에 있다. 중봉선생이 여기서 천상(天象)을 봤으며, 우암이 중봉선생 유상지석(遊賞之石)이라 썼으며, 후손 석렬(石烈)이 비석을 세웠다.

이 비석은 충북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에 있다. 마을 도랑 가 평지에 있는 평평한 돌이다. 조헌(趙憲)이 이 돌 위에 앉아서 천문을 관측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봉이 이 관천석에서 천문을 관측했다는 사실은 『인봉전승업선생유고(仁峰全承業先生遺稿)』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정사(精舍)의 가까운 땅에 기이한 바위가 있는데, 대개 3~4인이 앉을 수 있다. 선생이 날마다 중봉과 더불어 술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시도 읊으며 국사에 대해 슬퍼하고 분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을 계속했다. 밤에는 천문을 보아 왜구가 군사를 움직이는 징후를 관찰했다. 서고청(徐孤靑)²⁰⁾도 이르기를, “얼마 안 있어 백성이 어육(魚肉)이 되는 변고가 있을 것이니, 지사(智士)

17) 서울특별시, 『서울금석문대관』 제3집, 2000. 268~369쪽.

18) 송시열, 「기술잡록 권상하(記述雜錄 權尙夏)」, 『송자대전(宋子大全)』 附錄卷十九, 한국문집총간 115, 1993. 577면. “道峯舞雩臺之南, 蒼崖屹立. 其下大石橫亘溪面, 刻先生所書集晦翁詩二句. 筆勢雄健, 與萬丈峯相埒.”

19) 『호서읍지(湖西邑誌)』, 국립중앙도서관, 아세아문화사, 130쪽, 1984.

이상주, 「조헌의 울원구곡(栗原九曲)과 울원구곡시」, 『증원문화논총』 제10집,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2006.

는 마땅히 은거하여 성명(性命)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 이에 앞서 중봉이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형혹성(熒惑星)²¹⁾을 올려다보니 바야흐로 南斗로 들어가 尾星과 箕星의 분기점을 떠나니, 수많은 백성들이 장차 살육을 면하지 못할 것이 두려우니, 정자를 짓는 것은 두렵건대 급히 서두를 계획이 아닌가 합니다.”²²⁾

인봉 전승업(1547~1596. 50세 卒)은 지금 충북 옥천군 안내면 가산리 소홀곳(所忽串) 인봉(仁峰) 아래에 정사를 짓고 살았다. 중봉 조헌(1544~1592)은 지금 충북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도리밤티에 정사를 짓고 은거했다. 정자는 양신정(養神亭)이다. 인봉의 조부인 전팽령(全彭齡)이 후진을 강학하던 곳이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 목담서원 옆에 있다.

위의 중봉의 ‘관천석’ 사례를 보더라도 우암이 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했다면, 당시 사제시간에 언행을 기술하던 관행으로 보아, 『송자대전(宋子大全)』이나 그 제자들의 문집에 기록했을 것이다.

적어도 “침성대는 우암 선생이 천문을 관측하던 대이다. 별칭으로 관천석(觀天石) 또는 관천대(觀天臺)라 한다.”²³⁾ 정도로는 기록했어야 한다. 그러나 화양구곡 침성대 주변 바위는 물론 『송자대전(宋子大全)』에 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없다.

이번에는 바위에 명칭은 새겨놓고 그 관련자들의 이름은 문집에 기록한 경우를 보기로 하자. 지금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 12번지 암벽에, 尹淳(1680~1741)이 쓴 ‘라월경(蘿月逕)’이라는 글씨를 새겼다는 기록을 살펴보자.

「새로 작은 길을 만들고 이름을 ‘라월경(蘿月逕)’이라 했다. 관상인(觀上人)이 나를 위해, 바위 벼랑이 그것을 새겨 기록했다. 글씨는 곧 중화(仲和)가 쓴 것이다」²³⁾

글씨를 쓴 중화는 윤순(尹淳)의 자(字)이다. 글씨를 새긴 사람은 관상인(觀上人)이라 기록했다. 상인은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이 ‘라월경’이라는 암각글씨는 암각상에 전하는 충북 유일의 윤순의 글씨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관련 사실을 바위에 새겨 남겼다. 그런데 우암 같은 거유와 관련된 일을 어찌 소홀히 했겠는가.

20) 서고청(徐孤靑): 고청(孤靑)은 서기(徐起 1523~1591)의 호.

21) 형혹성(熒惑星): 화성(火星)의 이칭. “형혹성이 나타나면 병란이 일어나고, 들어가면 군사가 해산된다.”고 함. 『사기(史記)』 「천관서(天官書)」: “熒惑出則有兵, 入則兵散.”

22) 전승업(全承業)저, 전규호(全圭鎬)역, 『사실 창주 전극념(事實 滄洲 全克恬)』, 『인봉전승업선생유고(仁峰全承業先生遺稿)』, 111~112쪽, 도서출판 더뮤직, 2007. “精舍之近地, 有石奇, 凡可容坐三四人, 先生日與重峰, 攜酒觴吟, 悲憤國事, 以淚繼言, 夜觀天文, 以察海寇動兵之候. 徐孤靑亦云 未久將有生民魚肉之變, 智士當隱以全性命. … 先是重峰有書云, 仰瞻熒惑, 方入南斗纔離尾箕之分, 百萬億蒼生, 將懼不免于血肉, 營室恐非急計也.” 『인봉전승업선생유고(仁峰全承業先生遺稿)』는 2007년 12월 17일 월요일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에 사는 그 후손 전재구 어른이 필자에게 기증하였다.

23) 이하곤, 『新治小逕, 名曰蘿月逕. 觀上人爲我刻諸崖以識. 筆則仲和所書』, 『두타초(頭陀草)』, 한국문집총간 191, 303쪽, 1999. “剪木刻崖小逕開, 隣僧爲我刻巖苔. 從今好伴藤蘿月, 獨抱瑤琴自往廻.” 이상주, 『괴산군 청천면 沙潭里의 李夏坤의 遺跡 및 尹淳의 書藝遺蹟』, 『槐鄉文化』 제14집, 괴산향토사연구회, 2006. 27쪽.

4. 우암의 일상사에 대한 기록 - 문헌(文獻)

우암의 문하생들이 우암의 일상사를 비롯하여 그 특징적인 면모를 얼마나 꼼꼼하게 기술했는지 살펴보자. 다음은 수암의 글이다.

회옹(晦翁)은 공자(孔子)이후의 일인(一人)이며, 우암(尤菴)은 회옹(晦翁)이후의 일인이다. 선생은 성덕대업(盛德大業)으로 백세(百世)의 종사(宗師)가 되었다. 그 말씀 하나, 글자 한자가 모두 전해져 무궁하다. 24)

대표적 제자중의 한 사람인 수암의 우암에 대한 평가는 그 당시 우암에 대한 숭모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씀 하나, 글자 한자가 모두 전해져 무궁하다.”라는 대목을 보면, 그 제자들이 우암의 말씀하나 글자 하나를 기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음은 최신(崔愼 1642~1708)의 기록이다

무신년(1668년) 봄 … 선생이 화양동에 수 칸의 서실(書室)을 지었다. 장인(匠人)이 기둥머리에 올라가려하자 선생이 급히 제지하며 말씀하기를, “근년(近年)에 종질(從姪)이 사당(祠堂)을 지을 때, 장인이 떨어져 죽었다. 이는 삼가지 않아서 얻은 과실이다.” … 선생은 일찍이 학도(學徒)들이 반찬 없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사계(沙溪)선생의 말을 들었다. 소시적에 송구봉(宋龜峯)²⁵⁾에게 가서 수학할 때 밥을 먹을 때 장이 없었다. 그래서 소금 한웅큼을 입에 넣고 그걸 삼켰다. 한 해가 지나 돌아오다 한 계집종 집을 지나오다가 비로소 규채(葵菜)국을 얻어먹었는데 그 맛이 좋아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고 한다. 선배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학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김진옥(金鎭玉)은 사계의 현손(玄孫)이다. 선생이 말하기를, “진옥은 사옹을 닮았으며 침정관완(沈靜寬緩)의 상(像)이 또한 너무 닮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매우 사랑한다.”²⁶⁾

정묘년(1687년) 봄 … 선생께서는 밥을 잡수시는 것은 몇 홉의 쌀에 불과하다. 식사 하실 때, 마시고 먹는 것 수저 소리도 하나 없으셨다. 식사 때가 아니면 물을 마시지 않으셨다.²⁷⁾

병오년(1666년), 신(愼)이 화양동에서 선생을 모셨다. 매일 맑은 새벽에 선생은 이불을 끌어안고 일어나 앉으셔서 『맹자(孟子)』 수편, 『서경(書經)』의 전(典)과 모(謨)²⁸⁾, 『중용』과 『대학』의 정문

24)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附錄卷十九 記述雜錄 權尙夏 115_577a “… 晦翁, 孔子後一人, 尤菴, 晦翁後一人也. 先生以盛德大業, 爲百世宗師. 其一言一字, 皆足以傳之無窮.”

25) 송구봉(宋龜峯): 구봉(龜峯)은 송익필(宋翼弼 1534~1599)의 호

26)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附錄卷十七, 語錄 崔愼錄 上 115_539a. “先生作數間書室於華陽洞, 匠人欲登柱頭而上, 先生急止之曰, 頃年從姪之作祠堂也, 匠人落死. 此不謹之過也. … 先生嘗見學徒食無饌曰, 嘗聞沙溪先生之言, 以爲少時往受學於宋龜峯也, 食無醬. 乃以一握鹽入口吞之矣. 經年而歸, 路過一婢家, 始得食葵菜羹, 其味之美, 久不忘也. 先輩之刻苦學問可知. … 金鎭玉, 沙溪之玄孫也. 先生曰, 鎭玉克肖沙翁, 而沈靜寬緩之像, 亦且酷肖. 故吾甚愛之.”

27)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附錄卷十七, 語錄 崔愼錄 上 115_539a. “丁卯春 … 先生所食, 不過數合米. 食時, 一無飲啖及匙箸之聲. 非食時則不飲水.”

28) 『서경』의 편명인 「요전(堯典)」과 「순전(舜典)」, 「대우모(大禹謨)」.

(正文), 주자의 글 중 한 두 편 장편(長篇)을 외우셨다. 이것이 선생이 일생동안 해온 공부(工夫)이니, 상(喪)을 당하거나 병이 나거나 부득이한 일이 없으면,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날이 없으셨다. 선생이 매번 문생들에게 물으시기를, “군(君)들은 평일에 외우는 책이 없는가? 독서는 반드시 평일 외우는 것이 있을 후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말씀하시기를, “3~4백 번을 두루 읽지 않으면 문리(文理)에 통달할 수 없다.”고 하셨다.²⁹⁾

선생의 주량은, 몇 잔 드시는데 불과한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래 마실 수 없는데, 학습할 때는 몇 잔을 마실 수 있다. 대개 술은 요기가 되고 기를 보충하고 약효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문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 마시는 것을 익혀 기를 배양하지 않는가?”라고 하셨다. 해가 들어가면 저녁밥을 잡수지 않으며 말씀하시기를, “야식의 해는 굶주림보다 심하다.”라고 하셨다. 매양 글씨를 쓰실 때 반드시 한 잔의 술로써 약간 취하는 듯한데 이르셨다. 이에 붓을 잡고 휘두르면 붓끝이 호방하고 강건하셨다. 평상시에 일이 없으면 어두워져 가면 취침하시는데 시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빗질하게하고 주무셨다. 겨우 2~3경(更)가량 이르면 반드시 이불을 끌어 앉고 일어나 앉아 『중용』·『대학』·『맹자』·『서경』등 정문(正文) 각 수편 및 주자(朱子)의 글 2~3편을 외셨다. 닭이 울면 아이를 불러 등불을 밝히게 하고 다른 사람 집안의 묘문(墓文)을 짓고, 사람들이 보낸 서찰(書札)에 답하고 고금의 서적을 고증하고 펼쳐보신다. 날이 밝으면 등불을 끄고 환침(還寢)한다. 해가 뜨면 세숫물을 올리라 하신다.³⁰⁾

우옹은 말이 가늘고 낮아, 높은 목소리로 주고받지 않았으며 소리가 입안에 있었다.³¹⁾

화양동의 초당(草堂)아래, 전에 홍매(紅梅) 한 그루가 있는데 매우 무성했다. 기사년(1689년)초에 무단히 말라 죽었다가, 갑술년(1694년) 봄 다시 살아났는데 꽃과 잎이 전과 같았다. 선생이 또 효종이 돌아간 날 일찍이 오언시 일절(一絶)을 지었다. 여러 선비들이 돌에 새겨 비를 만들어 읍궁암(泣弓巖)에 세웠다. 선생은 매년 5월 4일 효종의 제삿날에 반드시 서쪽을 바라보며 이 바위에 통곡하며 다다랐다. 그래서 읍궁(泣弓)이라 명명한 것이다. 신축년(1721년) 문득 물 가운데 떠나려가 가라앉았다. 을사년(1725년) 에 이르러 나무꾼이 그걸 모래밭에서 습득했다. ³²⁾

29)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附錄卷十七, 語錄. 崔愼錄 上 115_539a. “丙午, 愼侍先生於華陽洞. 每清晨, 先生擁衾起坐, 誦孟子數篇, 尙書典謨, 庸學正文, 朱文中一二長篇. 此先生一生用工夫, 而若無喪病不得已之事故, 則無日無夜不然也. 先生每問門生曰, 君輩無平日所誦之書耶? 讀書者, 必有平日所誦者然後可用也. 又曰, 不讀三四百遍, 文理不達也.”

30)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附錄卷十七, 語錄 崔愼錄 上 115_539a. “...先生酒量, 不過數杯, 而曰, 吾本不能飲, 學習而能數杯. 蓋酒能療飢而補氣導藥故也. 嘗謂門生曰, 何不習飲而養氣耶? 日入則不進夕飯曰, 夜食之害, 甚於飢也. 每於寫字時, 必以一杯酒, 致其微醺. 乃把筆揮之, 筆端豪健. 平居無事, 則每日向晦而就寢, 令侍者櫛髮而睡. 纔到二三更許, 必擁衾而起坐, 誦庸學孟子尙書等正文各數篇及朱文二三篇. 鷄鳴則呼童明燈, 或著述人家墓文, 或裁答人書札, 或考閱古今書籍. 天欲明則滅燈還寢, 日出卽令進盥.”

31)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附錄卷十九 記述雜錄 鄭彥煥 三淵語錄 115_597b. “... 尤翁言語細下, 不爲高聲酬酢, 而聲在口中.”

32)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附錄卷十, 記述雜錄. 蔡之洪 115_593b. “華陽之草堂下, 舊有紅梅一樹甚盛. 己巳初, 無端枯死, 至甲戌春復生, 花葉依舊. 先生又於孝廟諱辰, 嘗作五言詩一絶. 多士刻石爲碑, 植于泣弓巖 先生每年五月四日諱辰, 必西望哭臨於此巖. 故名以泣弓. 辛丑, 忽漂沒水中, 至乙巳, 樵人得之沙上.”

이상에서 보았듯이 최신(崔愼)은 우암의 사소한 일면까지 기록해 놓았는데, 실제 우암이 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지당하지 않겠는가? 최신은 우암을 흠모하여 관북지방에서 온 사람으로 오랫동안 우암을 가까이서 모셨다. 그가 기록한 우암의 어록에 우암이 침성대에서 천체를 관측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어느 문헌에 그런 기록을 남아 있겠는가. 천문을 관측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기록을 남기겠는가. 채지홍은 매화나무가 고사했다가 소생한 사실도 소상히 기록해놓았다.

최신(崔愼)이 우암의 말씀을 기록한 연도는 다음과 같다. 갑진춘(1664)·병오년(1666년)·정미년(1667년)·춘하추·무신년(1668년)·기유년(1669년) 봄·계해년(1671년) 정조·갑인년(1674) 겨울·을묘년(1675년) 봄·정묘년(1687년) 봄이다. 무려 24년간의 기록이다. 우암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기록했는데, 천문관측에 대한 기록은 없다.

5. ‘침성대’라고 명명한 시기와의 대비

우암이 ‘침성대’에서 천문관측을 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다. ‘침성대’라는 명칭은 화양구곡 설정이후 부여된 명칭이다. 우암은 화양구곡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 사후 권상하와 민진원(閔鎭遠) 등 그 제자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화양구곡은 민진원이 확정하여 바위에 그 명칭을 전서(篆書)로 새겨 놓음으로써 최종 완성되었다. 따라서 ‘침성대’라는 명칭은 우암 서거한 후, 화양구곡이 설정되면서 명명됐다. 그 명명한 시기를 점검해보자

송주상의 『화양지(華陽地)』 1747년 간행되었는데, 김도수(金道洙 1699~1733)는 『화양지』가 간행되기 전에 죽었다. 그는 29세 되던 1727년 9월 지리산(智異山), 가야산(伽倻山), 속리산(俗離山)을 거쳐 10월 1일 화양동(華陽洞)을 유람했다.³³⁾ 그는 제5곡을 ‘능운대(릉운대)’로 기록해놓았다. 만력어필(萬曆御筆)과 승정어필(崇禎御筆)을 새겨놓은 것도 보았다. 만력어필은 신종(神宗)의 ‘비례부동(非禮不動)’으로 우암이 1674년 새기게 했으며, 승정어필은 ‘옥조빙호(玉藻冰壺)’로 수암 권상하가 1717년에 새기게 했다. 또 ‘대명천지(大明天地), 승정일월(崇禎日月)’이라 우암이 쓴 글씨를 새겨놓은 것도 보았다. 이로 보아, 민진원이 변경확정한 화양구곡 9개의 명칭을 바위에 새겨놓은 시기는 1727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민진원(閔鎭遠 1664~1736)이 최종 화양구곡의 9개의 명칭을 확정완성한 연도는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죽은 1721년 후, 김도수(金道洙 1699~1733)가 화양구곡을 여행한 1727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사후 30여년이 지난 때의 일이다. 이렇듯 우암이 생존할 당시에는 ‘침성대’라 명명하지도 바위에 새겨놓지도 않았다. 따라서 우암이 살아있는 동안 지금의 ‘침성대’에서 천문관측을 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33) 김도수(金道洙), 『춘주유고(春州遺稿)』, 「남유기(南遊記)」, 한국문집총간 219, 민족문화추진회, 1998, 19~32면. 丁未年 … 十月初一日癸未朝, 與柳生上巴串. … 蓋鳥嶺之山, 犇騰蹲舞而來, 一肢爲落影山, 一肢爲歡喜山, 蘊靈蓄異. 中決爲巴串之水, 而是洞有九曲之號, 象武夷之山. 日擎天臺, 日泣弓巖, 日金沙潭, 日凌雲臺, 日瞻星臺, 日臥龍巖, 日鶴巢臺, 第九曰巴串也. 自鶴巢稍下壁面, 刻萬曆崇禎兩皇帝御筆. 其下尤翁大書鐫之曰, 大明天地, 崇禎日月.

6. 침성대의 지리지형적 상황

이용삼은 논문 33쪽에 “그림 9. 우암이 천문활동을 연구하던 암서재”라고 설명했다. 34쪽에 “상단석은 가로 7.1 m, 세로 4.1 m의 거대한 암석이며 버섯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 위에 올라가 동쪽을 바라보면서 확 트인 시야로, 일출 장면은 물론 혜성이나 유성 같은 별과 천상을 관측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상단석과 대의 간격은 1.9 m로 기상 악화 시 관측의기를 보관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35쪽에 “하단석은 선조의 어필이 각자되어 있으며, 거대한 암석이 교차되어 삼각형태의 통로가 있어 기상 악화 시 관측인원의 대피장소로 적당한 구조로 되어있다.”고 했다. 침성대와 암서재와의 거리는 약 600 m 쯤 될 것이다. 기상이 악화될 징조가 보이면 암서재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리다.

36쪽에 “그림 13. 서편에서 보는 화양구곡 침성대의 층층이 쌓은 판석(板石)의 모습과 경주 침성대와 비교한 모습” 36쪽에 “이 침성대에 올라가기 위해 서편 산길로 올라가려고 보면 무수히 많은 판석들을 층층이 쌓아 탑을 쌓아 만든 축조물 같이 경주 침성대를 연상케 하고 있다.”라고 했다. 판석이라 하는 돌은 인공으로 쌓은 돌이 아니라고 본다. 돌의 크기로 보아 기중기로 쌓아도 어렵다. 또 우암이 당시 급경사의 위험한 지역에서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 그런 토목공사를 할 분이 아니다. 만약 했다면 제자들 누군가 기록해 놓았다.

36~37쪽에 “우암이 암서재에 은거할 당시 그의 만년에 노구의 몸으로 야심(夜深)한 밤에 후진양성을 위해 제자들과 함께 침성대에 올라 혼천의를 사용하여 관측을 수행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주자연의 이치를 통찰하는 학덕을 가졌던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모습으로 실제 관측 체험을 통해 하늘을 사모하고 천상(天象)을 보며 일월성신을 살폈을 것이다. 당시를 상상하며 그들이 침성대에서의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관측하는 모습을 삽화로 그려 본다. 그림 14. 화양구곡 침성대의 관측하는 모습”이라 서술했다.

만약 우암이 화양구곡에서 천문을 관측한다면 침성대에서 하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침성대의 높이가 평지에서 100 m도 안 될 것이다. 평지에서 관측할 때와 침성대에서 관측할 때, 그 가시범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침성대에서 관측이 가능한 천문현상이라면 평지에서도 거의 차이 없이 관측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두운 밤에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 침성대에 올라가겠는가? 침성대가 속해있는 산의 정상도 암서재 뒷산(파곳산)의 정상보다 고도가 더 높지 않다. 올라가기도 불편하고 위험한 곳에서 천체를 관측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도 상으로 보아도 차이가 없으며, 등정하기에 안전한 암서재 뒷산 파곳산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다. 세기적인 천재인 우암이 이런 조건을 모르고 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하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6가지 근거를 통해, 우암이 화양구곡 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하지 않았다고 정중하게 주장한다.

Ⅲ. 우암이 소유했던 선기옥형의 용도와 그 제작자

1. 우암이 소유했던 선기옥형의 용도

이제 우암이 소유했던 선기옥형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자. 혼천의(渾天儀)에 관한 기사는 조선왕조실록에 24건이다. 『송자대전(宋子大全)』에 총 4건이 수록되어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이 혼천의를 제작했다³⁴⁾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선기옥형’에 관한 기사는 총 18건이다. ‘선기옥형(璿璣玉衡)’으로 표기한 기사가 11건, ‘선기옥형(璇璣玉衡)’으로 표기한 기사가 7건이다. 우암이 소유했던 혼천의가 과연 화양구곡 침성대에서 천체관측에 사용되었을까? 실록의 내용을 토대로 검증해보기로 한다. 그 사용처를 짐작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단서가 있다. 바로 「영릉지(寧陵誌)」의 다음 대목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우(禹)임금이 부지런하게 힘쓴 것은, 백번 싸워 창업한 것보다 심하다. 그러나 우(禹)임금은 천하를 사사로이 하려는 마음이 절대로 없었으니, 이것이 성인(聖人)이 된 이유이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실로 묵계(默契)에 깊이 조예가 있어 한 말이지, 매달려 헤아리고 모아서 분떠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개 임금께서 빼어나고 슬기로우면 매우 뛰어나, 겨우 15세 때³⁵⁾ 『서경(書經)』의 기형률려(璣衡律呂)³⁶⁾의 법(法)을 강할 때, 깨달아 이해하는 것이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고, ‘기삼백(碁三百)³⁷⁾과 같은 데 이르러서는, 비록 노련한 스승³⁸⁾과 견문이 많은 유학자³⁹⁾라도 오히려 통달하기 어려움을 속상해했는데, 임금께서는 한 번 보시면 다시 막히는 것이 없었다. 이로부터 사물의 긴요한 곳⁴⁰⁾에 대해서, 심하게 사색하지 않으시고, 시원하게 통달하고

34)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卷一百九十八. 墓表. 樊谷處士權公墓表 114_419b.

_____ , 『송자대전(宋子大全)』, 卷一百九十八. 墓表. 獻陵參奉趙公墓表 114_422d.

_____ , 『송자대전(宋子大全)』, 卷二百五. 諡狀. 愚伏鄭公諡狀 114_556a.

_____ , 『송자대전(宋子大全)』, 卷二百十. 行狀. 永春縣監贈參判李公行狀 115_094b.

35) 성동(成童): 15세 이상의 소년. 『禮記』, 「內則」. “成童舞衆, 學射御.”

36) 기형률려(璣衡律呂): 선기옥형(璿璣玉衡). 구슬로 장식한 혼천의(渾天儀). 선(璿)은 구슬. 기(璣)는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 율(律)은 육률(六律)과 육려(六呂). 음률(音律)의 청탁과 고저를 규정하고 나아가 도량형(度量衡)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37) 기삼백(碁三百): ‘1년이 366일’이라는 뜻. 『書經』, 「堯典」. “碁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 定四時成歲.”

38) 노사(老師): 노련한 스승.

39) 숙유(宿儒): 견문이 많은 유학자.

40) 궁계처(肯綮處): 궁(肯)은 뼈에 붙은 살. 계(綮)는 뼈와 살이 이어진 곳. 전의되어 사물의 가장 긴요한 곳.

도달해서, 매우 고명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실로 후세 임금에 바랄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⁴¹⁾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암이 소유했던 혼천의도 『서경(書經)』에 나오는 기형률려(璣衡律呂)의 법(法)을 강할 때, 사용하던 교육보조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가 지구의(지구본)를 교육보조자료로 사용하듯이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보아야한다. 지금 전해오는 선기옥형이 효종대왕이 세자시절에, 우암이 사용했던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음의 내용들을 보기로 하자.

성종 22년 신해(1491, 홍치 4). 3월 5일(신사). 기사관(記事官) 이상(李瑄)이 아뢰기를,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천문(天文)을 관찰한다.’고 하였고,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일월성신(日月星辰)을 관찰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선기옥형(璿璣玉衡)으로 살핀다.’라고 했으니, 천문은 인주(人主)가 당연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시강관(侍講官) 김응기(金應箕)가 대답하기를, “성인(聖人)이 우러러 천문(天文)을 관찰하고, 굽어 지리(地理)를 관찰한다고 하였으니, 천문은 인군(人君)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원전】 12집 1면

명종 8년 계축(1553, 가정 32). 3월 2일(무인). 삼가 전교하신 말씀을 보니 ‘천문서(天文書)와 의서(醫書)는 곧 잡술서(雜術書)이므로 간행해서는 안 되는데, 감인관(監印官)이 쓸데없이糯米(糜料)만 허비하며 교서관(校書館)의 관원에게 교감(校監)시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천문서·의서가 잡서이기는 하지만 복희(伏羲)가 천문을 우러러보고, 제요(帝堯)가 공경하여 하늘을 따르고, 제순(帝舜)이 선기옥형(璿璣玉衡)을 살피어 모두 이것으로써 왕자(王者)의 급선무를 삼았지, 잡술이라 하여 폐기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의서는 신농(神農)이 짓고 황제(黃帝)가 강론(講論)하여 이윤(伊尹)이 전하였으며 게다가 주자(朱子)도 『소학(小學)』 속에 의술(醫術)을 배우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기재하였지 잡술이라 하여 폐기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원전】 20집 115면

조선조시대에는 군왕으로서 선기옥형(璿璣玉衡)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급선무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을 보면 선기옥형(璿璣玉衡)의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명종 3년 무신(1548, 가정 27). 10월 19일(경신). 전교하였다. “선기옥형(璿璣玉衡) 및 혼천의(渾天儀)를 해조로 하여금 만들어 들이게 하라.” 【이때에 《서전(書傳)》 초권을 강의하고 있었으므로 그 제도를 보고 싶어서 이러한 전교가 있었다.】

【원전】 19집 617면 ○傳曰: “璿璣玉衡及渾天儀, 令該曹造入。” 【時講《書傳》初卷, 欲覽其制, 故有是教。】

41)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卷一百八十一, 「陵誌. 寧陵誌文」 114_162a. 『효종실록』, 부록, 「효종대왕묘지명」. 『화양지』, 「영릉지만 부(寧陵誌挽 附)」, 33~34쪽. “又曰禹之勤勞, 甚於百戰創業. 然禹絕無私天下之心, 此其所以爲聖人也. 此實濶造默契之言, 非懸度揣摸之可及也. 蓋王英睿絕倫, 甫成童, 講尙書如璣衡律呂之法, 曉解如破竹, 至如碁三百, 雖老師宿儒, 猶病其難通, 王一見無復礙滯. 自是於肯綮處, 不甚思索, 而洒然通透, 克至乎高明之域, 實非後世人主所可企望也.”

명종 4년 기유(1549, 가정 28). 1월 2일(계유). 홍문관(弘文館)이 선기옥형(璿璣玉衡) 혼천의(渾天儀)의 제도(制度)를 올리니, 상이 내관(內官) 박한종(朴漢宗) 등을 홍문관에 보내어 강습(講習)하게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내관 박한종을 홍문관에 보내어 선기옥형 혼천의의 제도를 강습하게 하셨습니다. 상께서 잘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의당 경연관(經筵官)을 소대(召對)하여 편전(便殿)에서 논란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내관을 보내어 강습하게 하였으니, 사체(事體)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전례도 없기에 감히 아뢰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내관을 시켜 그 대강을 익혀 가지고 와서 아뢰게 한 뒤에 자세한 것은 다시 경연관에게 하문하려고 했다.”하였다. 【원전】 19집 621면

두 기록에서 보듯이, 선기옥형은 경연에서 군신들이 『서경(書經)』의 내용인 기형률려(璿衡律呂)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른 바 선기옥형은 『서경(書經)』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시각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틀림없다.

효종의 부왕인 인조와 관련하여 선기옥형에 대한 기사를 보자.

인조 6년 무진(1628, 승정 1). 11월 1일(무오). 상이 소대(召對)를 명하여, 『서전(書傳)』을 강하였다. 부제학 정경세(鄭經世)가 아뢰기를, “율(律)은 12율을 가리키는데, 음양을 합해서 말하면 열둘이고 나누어서 말하면 양률(陽律)과 음률(陰律)이 각각 여섯입니다. 양은 율(律)이라 하고 음은 여(呂)라 하는데, 황종(黃鍾)·태주(大簇)·고선(姑洗)·유빈(蕤賓)·이칙(夷則)·무역(無射) 여섯 가지는 양이고, 대려(大呂)·협종(夾鍾)·중려(仲呂)·임종(林鍾)·남려(南呂)·응종(應鍾) 여섯 가지는 음입니다. 12개의 관(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경(經)이 3분(分)이고 위(圍)가 9분입니다.” 하니, … 상이 이르기를, “선기옥형(璿璣玉衡)에 대해서는 잘 아는 자가 없었는데 경에게 물어보고 싶다.”하니, 경세가 아뢰기를, “신이 서생(書生) 때부터 연구했으나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만든 것이니, 결코 범상하게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하였다. 상이 묻기를, “그 주(註)가 분명한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가 불분명해서 모르는 것인가?”하니, 경세가 아뢰기를, “주가 분명하기는 하나 공교한 곳에 이르러서는 문자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흑쌍환(黑雙環)은 바로 천경(天經)으로 묘방(卯方)·유방(酉方)에 매여 있지 않는데 주에서는 묘방·유방에 매여 있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이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단환(白單環)과 직거(直距)에 대해서는 제가(諸家)의 역서(歷書)에 논설(論說)이 많기는 하나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하였다. 【원전】 34집 304면

인조가 『서경』에 나오는 선기옥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만큼 선기옥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정경세도 서생 때부터 연구했으나, 성인이 깊이 생각하여 만든 것이라 범상하게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다. 선기옥형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군왕으로서 이것을 정립한 제순(帝舜)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자부심의 표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인조실록 부록. 인조 대왕 묘지문(誌文)② 학문을 좋아하시는 것은 천성이었다. 잠저(潛邸)때부터 하루도 글을 버려두고 보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즉위하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닦아

일으키되 삼대(三代)와 함께 하려고 생각하여 현준(賢俊)을 맞아들여 등용하고 미천한 자 중에서도 채용하셨으며, 세월이 모자랄 듯이 경연에 부지런하여 하루에 세 번 인접하셨다. 선기옥형(璇璣玉衡)의 세밀하여 알기 어려운 것과 주고은반(周誥殷盤)의 아득하고 엄숙한 것에 대하여 모두 요령을 종합해 내고 풍아비흥(風雅比興)의 시(詩)와 전주(箋註)가 잡다한 곳에 대하여 모두 꿰뚫어 환히 아시니, 스스로 노숙한 사유(師儒)라 하여도 어렵고 의심스러운 물음을 받으면 입이 벌어지고 혀가 움츠러지지 않는 자가 드물었다. 【원전】 35집 358면

인조가 즉위하여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닦아 일으키되 삼대(三代)와 함께 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선기옥형에 관해 그 경지에 도달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조선시대 성군이 되려는 군왕들은 선기옥형에 대해 이해가 기본 필수 학습사항이었다.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우암이 소유했던 선기옥형은 천문을 관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경(書經)』에 나오는 기형률려(璣衡律呂)의 법(法)을 강의할 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보조학습기구이다.

2. 우암이 소유했던 ‘선기옥형’의 제작자

우암이 소유했던 선기옥형의 제작자에 대해 알아보자. 『송자대전』에 선기옥형(璿璣玉衡)에 관한 기사는 단 1건이다. 그러나 여기에 선기옥형의 용도와 우암이 소유했던 선기옥형의 제작자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담겨있다.

내가 여쭙기를 “선기옥형(璿璣玉衡)의 제도는 그림으로써 그것을 살펴보니, 끝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떤 것입니까?”라고 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림으로써 깨우치기 매우 어렵다. 만약 제도를 만든 이유를 관찰하고자 한다면 즉 알기가 어렵지 않다.”고 하셨다. 이로 하여 모시는 사람에게 선기옥형을 가지고 나오라 명했다. 먼저 하얀 작은 종이로 그 중앙 2개 고리의 반에 붙여, 하지와 동지 때의 일도(日度)를 나누셨다. 그런 후에 장차 근본 설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매우 밝으셨다. 내가 이하는 깨달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선생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백강(白江)의 첩의 아들 이민철(李敏哲)이 제작한 것이다. 이군은 또 다른 한 개를 제작했는데, 그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하셨다. 42)

위의 내용은 1682년 화양동에서 문답한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 우암이 이희조(李喜朝 1655~1724)에게 선기옥형에 대해 그림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실물모형을 가져오게 하여 설

42)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권 9 부록 어록, 한국문집총간 115, 480면. 李喜朝. 壬戌華陽語錄。下同。余問璿璣玉衡之制，以圖觀之，終未解見，何也。先生曰，圖甚難曉。若觀其所造制度，則不難知也。仍令侍人持出所有璣衡。先以白小紙，貼其中二環之半，分夏至冬至之日度。然後將本說一一指教甚哲，余言下可悟。先生且曰，此乃白江妾子李敏哲所造也。李君且造一本，其度甚大。 이 내용은 이희조의 문집인 『芝村集』 卷 三十에도 실려 있다. 1910년까지도 우암이 소유했던 ‘선기옥형’은 화양동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신익균(申益均 1879~1939), 『과암집(果庵集)』, 『관선기옥형(管璿璣玉衡)』, 참조.

명하는 현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눈에 그려진다. 이희조의 이 기록을 통해, 우암이 소유했던 선기옥형은 그 제자들에게 『서경』에 나오는 기형률려를 교육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학습 보조기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런 세세한 내용을 기록해놓았는데, 실제 우암이 ‘선기옥형’을 이용해서 화양동 침성대에서 천문관측을 했다면 그 사실까지도 기록해 놓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다. 더군다나 화양동에서 문답한 내용인데도 말이다. 이를 통해 우암이 화양동 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용삼은 선기옥형을 우암이 제작했다고 믿고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 우암이 소유하고 있던 선기옥형은 이민철(1631~1715)이 제작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백강은 이경여(李敬輿 1585~1657)의 호이다. 이민철⁴³⁾은 숙종실록에 두 번 이름이 보이는 선기옥형 전문가이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우암이 선기옥형을 소유한 것은 『서경(書經)』의 내용인 기형률려(璣衡律呂)를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시각적 교육기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 우암이 소유한 선기옥형을 우암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민철(李敏哲 1631~1715)이 제조한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용삼 교수가 화양구곡 침성대에서 우암이 실제 천문을 관측했으며, 우암이 소유한 선기옥형이 천문관측용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논거를 제시했다.

필자가 제시한 6가지 근거를 통해, 화양구곡의 ‘침성대’가 우암이 천문을 관측해서 ‘침성대’라 명명한 것이 아니라고 정중하게 주장한다. 또한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는 행성의 주기, 행성의 운행궤도, 별의 밝기 등 오늘날 수준의 천문관측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논어』 「위정(爲政)」에 “정사(政事)를 덕(德)으로 하면, 비유컨대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으면 못 별들이 그를 안고 따라 도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은 나온다. 이렇듯 화양구곡 ‘침성대’는 『논어』 「위정(爲政)」에 나오는 임금의 덕화(德化)의 중요성을 후학들이나 백성들에게 교화·강조하기 위해 자연물에 가탁하여 명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화양구곡 침성대에는 조

43) 숙종 13년 정묘(1687, 강희 26). 7월 15일(신묘). 임금이 최석정(崔錫鼎)·이민철(李敏哲)에게 선기옥형(璿璣玉衡)을 수리하도록 명하였다. 【원전】 39집 106면. 숙종 14년 무진(1688, 강희 27). 5월 2일(계유). 선기옥형(璿璣玉衡)이 완성되었다. 이보다 앞서 현종(顯宗) 때에 이민철(李敏哲)로 하여금 혼천의(渾天儀)를 만들게 하였으나, 중간에 폐지하여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 되었는데, 최석정(崔錫鼎)이 수리할 것을 건의하여 청하므로, 임금이 이민철에게 명하여 다시 수리하게 하고, 최석정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독하게 하여 제정각(齊政閣)에 두었는데, 제정각은 회정당(熙政堂) 남쪽에 있다. 【원전】 39집 126면.

일전쟁(朝日戰爭)때 중국 명나라 황제인 신종(神宗)이 원군을 보내준 은혜와 우리나라 선조와 효종의 성을을 잊지말아야한다는 의식을 가탁한 것이다. 이렇듯 화양구곡의 ‘침성대’라는 이름은 유학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명명된 것이다. 우암이 화양구곡의 ‘침성대’에서 천체를 관측했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당시의 상황과 사상적 배경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침성대 즉, 별을 바라보는 대’라는 외형적 이름에 얽매어 해석한 것이다.

우암이 소유한 선기옥형은 천문관측용이 아니라 『서경(書經)』의 내용인 기형률려(璣衡律呂)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시각자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 우암이 소유한 선기옥형은, 우암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민철(李敏哲1631~1715)이 제조한 것이다.

【참고문헌】

국역 조선왕조실록(효종·성종·명종·인조·숙종)

『논어』

『서경』

『예기』

『화양지(華陽誌)』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한국문집총간 150, 민족문화추진회.

박노중(朴魯重), 『창암집(滄菴集)』 권1·2, 대전 서진인쇄출판사, 1997.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III·VIII, 한국문집총간 113·115, 민족문화추진회, 1993.

신익균(申益均), 『과암집(果庵集)』.

심정진(沈定鎭), 『제현집(霽軒集)』.

이하곤(李夏坤), 『두타초(頭陀草)』, 한국문집총간 191, 민족문화추진회, 1999.

전승업(全承業) 저, 전규호(全圭鎬) 역, 『인봉전승업선생유고(仁峰全承業先生遺稿)』, 도서출판 더뮤직, 2007.

서울특별시, 『서울금석문대관』 제3집, 2000.

『호서읍지(湖西邑誌)』, 국립중앙도서관, 아세아문화사, 1984.

蒼梧雲斷, 武夷山空: 巖刻書.

崇禎皇帝御筆, 非禮不動: 巖刻書.

大明天地, 崇禎日月: 巖刻書.

二止堂: 巖刻書.

霽月光風更別傳, 華陽老夫書: 巖刻書.

中峰先生游賞之石: 巖刻書.

尹淳, 蘿月逕: 巖刻書.

‘巖棲齋’ 詩板.

이용삼, 「우암의 혼천의와 화양구곡 침성대에 대한 고찰」,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창립기념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이상주, 『18세기 초 호남기행 - 남유록과 남행집』, 이화문화출판사, 2003.

_____, 「조현의 울원구곡(栗原九曲)과 울원구곡시」, 『중원문화논총』 제10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6.

_____, 「화양구곡(華陽九曲)과 그 문화유적에 대한 종합적 고찰」, 『원칙과 개혁에의 고뇌, 우암 송시열의 사상과 문화』, 우암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007.

_____, 『충북의 구곡과 구곡시』, 충북학연구소, 2007.

중부매일 2007년 4월 2일 “우암, 침성대에서 실제 천문 관측했다.”

[사람과풍경] 산골학교에 박물관 뒀다 “우와! 신기해.” 청주박물관 ‘화상 특별전’ 송시열 유물 실시간 전송 ‘생생’...학생들 질문 봇물 오윤주 기자 기사등록 : 2007-11-08 오후 09:09:36

©한겨레(<http://www.hani.co.kr>).